

어떤 주제의 책인가?	소속을 선택하세요.	도서관명을 알려주세요.	이름을 알려주세요	추천하시는 책의 제목은 무엇	추천 책의 출판사는 어(추천 책의 지지는 누구인 책 속의 한 줄이나 감상평을 적어주세요.)				
11월의 주제 <친구에게 추천	강원지부	작은도서관 caru	이선미	로컬책, 어디에 사세요?	온다프레스	서진영	친구들에게 추천이 어떤 곳인지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책		
11월의 주제 <친구에게 추천	개인회원	개인회원	김진희	무정형의 삶	위즈덤하우스	김민철	여기 아틀라다들이 온몸에 직선으로 와서 안겨버리는 공간이니까. (책 속 한 줄)		
11월의 주제 <친구에게 추천	경기남부지부	애기똥풀도서관	한은희	당신 인생의 이야기	엘리	테드 창	남은 생이 얼마나 과분한 은총인지 깨달았을 때, 가장 선한 사람을조차도 이 인간계의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11월의 주제 <친구에게 추천	경기남부지부	애기똥풀도서관	한은희	희랍어 시간	문학동네	한강	오래된 단 낱새가 날 것 같은 봄날의 공기를 가로질러 그녀는 걷는다.		
11월의 주제 <친구에게 추천	경기북부지부	강릉문화작은도서관	김희정	우리가 안도하는 사이	자음과모음	김이설	나이 50을 앞둔 세 친구가 떠난 25년 만의 여행. 지나온 세월을 글쓰고 털어버리며 나이들을 맞이하는 여정을 읽으며, 몇 년전부터 해마다 소꿉친구와 약속만 하고 있는 여행을 오늘도 꿈꾼다. 지금 이 계절, 가을에 추천하고 싶은 책.		
11월의 주제 <친구에게 추천	경기북부지부	고양 작은도서관	심은경	나의 돈키호테	나무열의자	김호연	인간은 꿈꾸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나의 꿈이 담긴 작은도서관을 18년 동안 운영하며, 여러 가지 색의 나의 꿈이 또 다른 어린이들에게 또 다른 색깔의 꿈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믿기에, 나는 배관을 앞둔 한 달을 남겨두고, 또 다른 꿈을 안고 떠나는 돈키호테가 되어보고 싶다.		
11월의 주제 <친구에게 추천	경기북부지부	내유작은도서관	안수빈	강정호텔: 내 마음이 머무는 곳	책읽는곰	리디아 브란코비치	기쁨, 즐거움, 불안 등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에 대해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어린이 친구들이 본인의 감정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		
11월의 주제 <친구에게 추천	경기북부지부	에다움작은도서관	백정희	이중 하나는 거짓말	문학동네	김예란	힘들었던 시절에 함께 한 친구에게 서로 연결된 우리들을 떠올리며 나누고 싶다.		
11월의 주제 <친구에게 추천	경기북부지부	와이시작은도서관	김경진	우울해서 뺨을 샀어	이문서재	안드레아 카스프르작	도서관은 우리에게 변치 않는 발견과 경이로움의 설렘을 선사하며, 고전적인 로맨스를 계속 이어 붙입니다.		
11월의 주제 <친구에게 추천	경상지부	한국작은도서관	김정진	매일매일 좋은 날	알에이치코리야	모리시타 노리코	"비가 오는 날엔 벼를 들으렴. 용도 마름도 제대로 여기에 있는 거야. 오감을 사용해서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맛보렴. 그러면 알게 될거야. 자유로워지는 길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단다." p255		
11월의 주제 <친구에게 추천	대구지부	해병작은도서관	이수미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북스고	박준홍	*히키코모리라는 은둔자의 세대를 지나서 사토리 세대가 되었다. 사토리 세대는 욕심이 없는 특이한 세대. 사토리 세대의 특징은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 물욕과 여행은 남보다. 열심히 해야 한다면 손을 뻗지 않겠다. 는 말을 많이 한다. 이세대가 등장하면서 해상치럼 뿔은 것이 일본의 백엔 개개인 다이쇼다. 다이쇼는 모든 물건을 백엔 에다는 제품들 저 가게의 브랜드다. 사토리 세대는 돈을 쓰지 않으려도 할 것이 많다. 인터넷이 있어서 휴대전화 PC 게임기만 있으면 적은 돈 혹은 무료로 엄청난 시간을 재워게 보낼 수 있다. 아무 욕심이 없는 이들이 가져온 엄청난가 정적인 변화는 바로 소비다. 지금 일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생 직장이 아니라 편익점과 같은 단순 알바도 상당히 많다. 일본에는 새로운 제품이 없다. 대부분 과거의 제품들이다. 사토리 세대가 적어도 패션만큼은 관심을 가진다. 사토리 세대는 근검절약, 작은 것에서 행복을		
11월의 주제 <친구에게 추천	서울동부지부	아차산아래 작은도서관 놀자	김여숙	취슬이 두 번 울때까지	사계절	이명애	피구 하나로 이 사회의 악자를 향한 폭력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된다.		
11월의 주제 <친구에게 추천	서울동부지부	작은도서관 웃는 책	김자영	일기	창비	황정은	이렇게 유지하는 고요가 그래도, 그래서, 나는 좀 정그롭습니다.		
11월의 주제 <친구에게 추천	서울서부지부	성대골어린이도서관	정성경	행복은 발가락 사이로	크레아머니	이광이	중년의 세세한 마음이 일상에서 서슴없이 등장하고 공감대가 열매 백배 일러온답니다		
11월의 주제 <친구에게 추천	서울서부지부	숲속SH작은도서관	조슬기	엄마만의 방	유유히	김그래	누구보다 많은 역할을 부여 받지만 자기만의 시간도 공간도 가지기 힘든 세상의 엄마들을 위한 응원책. 너는 엄마라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니.		
11월의 주제 <친구에게 추천	서울서부지부	흥부네그림책도서관	임희정	당신은 빛나고 있어요	웅진주니어	애린 베키	친구에게 선물로 주며 다정하고 따뜻하게 말해주고 싶다. "너는 항상 빛나고 있어." 라고.		
11월의 주제 <친구에게 추천	울산경주지부	에일린의물2차 작은도서관	강선영	죽이고 싶은 아이	우리학교	이꽃님	"무슨 소리가, 사람들이 아무런 그제 사실이 되는 거야. 팩트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11월의 주제 <친구에게 추천	인천지부	꿈나래어린이도서관	안은경	우리는 보통가족입니다.	개암나무	김용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멋진 가족 이야기		
11월의 주제 <친구에게 추천	인천지부	꿈나래어린이도서관	안은경	인어사냥	해럴드	차인표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인지 그러나 정말 인간다움이 뭔지도 알려주는 책		
11월의 주제 <친구에게 추천	인천지부	늘푸른어린이도서관	박소희	도서관 (포용적 도서관의 요소msv	미션잇 편집부		포용적 도서관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안된다면 말이 너무 쉬운 세상에서 그럼에도 지켜져야 하는 것들을 도서관 안에서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변화의 시작이겠지요. 작은도서관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11월의 주제 <친구에게 추천	인천지부	늘푸른어린이도서관	박소희	이 지말았음이 쌓여 축제가 되		조슬리	더 많은 거절과 더 많은 모욕과 조롱이 우리를 따라다녔다. 그럼에도 나는 다음 여행을 준비한다.		
11월의 주제 <친구에게 추천	인천지부	충추는달팽이도서관	최선미	어른에게도 놀이터가 필요하다	글리	주은경	행복은 바라는 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과 의지로 맺는 열매 같은 것이라는 걸 나는 여행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11월의 주제 <친구에게 추천	충청지부	지기마을10단지 푸른작은도서관	윤나영	핑!	달리	아니 카스키요	이 책은...(중략)... 함께 공부하고 서로 배으며 모르는 사람과 친구가 되고 낯선 이를 환대하는 공간과 사랑의 이야기. (프롤로그 중에서)		
11월의 주제 <친구에게 추천	충청지부	성성푸른도서관	박민주	죽이고 싶은 아이1,2	우리학교	이꽃님	친구와의 관계에서 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마음들을 핑과 풍으로 나타내어 명쾌하게 전달하고 있다. 친구와 함께 읽으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될 것 같다.		
11월의 주제 <친구에게 추천	충청지부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엄지선	꽃, 길을 걷다	밖은미래	김종민	회가난다. 우리의 모습이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울산경주지부	문수산더샵작은도서관	문신임	30개 도시로 읽는 한국사	다산초당	황규진	일상을 바쁘게 살아온 친구에게 힐링의 시간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울산경주지부	하랑작은도서관	배수경	파랑이와 노랑이	물구나무	레오 리오니	30개 도시의 역사를 쉽게 접할 수 있어 좋았음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인천지부	골짜기작은도서관	박진영	일주일	자음과 모음	최진영	각자의 경험, 감정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인천지부	와글와글작은도서관	오영숙	바람의 화원	밀리언 하우스	이정형	현실과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 많은 청소년들의 성장을 현실과 잇게 그려 냈다. 현실이 조금 버겁고 불안 하더라도 불행 하지 않고 결국엔 행복해 지기를 바라는 소설. 처음 만남을 때 나의 제자였고, 나는 그의 스승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배웠고, 그는 나를 가르쳤다. 우리는 서로 마음을 나눌 유일한 친구였고, 죽도록 이기고 싶은 경쟁자였고, 정적으로 뜨겁게 불타는 연인이었고, 넣고 싶은 책이었다. 죽어서도 낯지 못할 높은 벽.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인천지부	콩세알도서관	국향미	이름없는 여자의 여덟 가지 인	위즈덤하우스	이미리내	영어로 출간되어 한국어로 번역된 한국작가의 소설이라는 점에 끌려서 읽었는데 여러 이름으로 살아 온 한 여성의 고난과 역경의 스토리에 긴장감을 늦출 수 없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충청지부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이나양	런던러사 빼에르의 세련된 맛	고두미	박해지	어린시절 선망의 대상은 누구였을까? 추억에 잠겨며, 삶이란 무엇인지 고민하는 주인공의 모습에 어느덧 공감하게 된다.		